

퇴근길 동네 마트의 정육 코너 앞. 나는 오늘따라 유독 두툼해 보이는 삼겹살 한 팩을 들었다 왔다 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관리비와 남편의 병원비, 카드값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삼겹살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고, 그 옆에 쌓여 있던 얇고 저렴한 돼지 앞다릿살 한 팩을 집어 들었다.

비닐봉지 속 알뜰한 고기 팩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손등에 부딪혔다. 호기롭게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섰지만, 고작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구나. 카트 손잡이를 왼 손에 묵직한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이른바 '가장'의 무게였다.

현관문을 여니 주방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주방으로 들어서자 낡은 도마 앞에 선 남편의 굵은 뒷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이거야.”

내가 앞다릿살 팩을 쓱 내밀자, 남편은 “오, 고기 좋은데?” 하며 씩 웃더니 능숙하게 파와 양파를 썰어 프라이팬에 올렸다.

40대인 나는 매일 아침 차를 몰고 화성의 한 중소기업으로 출근하고, 남편은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틈틈이 글을 쓴다.

요리사였던 남편은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다 허리를 크게 다쳐 주방을 떠나야 했고, 나는 첫 직장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갇눌려 현관문조차 열지 못할 만큼 무너져 내렸었다.

살길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예전 직장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은 출근하는 내 손을 짹 쥐어주며 말했다.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일해.” 그날부터 남편은 자연스럽게 살림을 도맡았다.

하지만 나는 꽤 오랜 시간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누군가 남편의 안부를 물을 때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글 써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보다, 괜히 다른 부수입들을 늘어놓으며 변명 섞인 포장을 덧붙이곤 했다. 남편이 갓 지은 밥을 차려줄 때마다 고마움 이면에는 묘한 부채감이 자리했다. 남편은 저렇게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데, 나는 삼겹살 한 근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다. 그것은 '돈을 벌여오는 사람만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내 안의 오래된 편견이었다.

그 무렵,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혼자 돈 버느라 힘들지?”

딸을 향한 당연하고도 평범한 걱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예요. 오히려 일해요. 집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그 통화 내용을 가볍게 전하자, 남편은 잠시 웃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이야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그 말이 남편 마음에 오래 남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남편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 역시 '가장'이라는 단어에 짓눌렸듯, 남편 역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 편견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둘을 함께 짓누르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철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거실 슬라이퍼를 한쪽만 걸쳐 신은 채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나머지 한쪽은 맨발이었다.

“나, 상 받았어!”

터질 듯 상기된 얼굴, 덜덜 떨리는 손에 들린 휴대폰. 오랫동안 수많은 거절 메일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써 내려갔던 남편의 글이 마침내 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남편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번 월급만으로는 우리 집이 굴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내가 무사히 현관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묵묵히 도맡아준 가사 노동과 다정한 정서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멈춰 있던 것이 아니라,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사 온 앞다릿살은 남편의 손을 거쳐 근사한 제육볶음이 된다. 나는 남편의 수고를 칭찬하고,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돌아온 나의 피로를 토닥인다.

우리 집은 '누가 가장인가'를 묻는 사람이 없다.

지친 사람이 쉬면, 다른 사람이 한 걸음 더 내딛는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등을 밀며 살아간다.